

미산 옥수수 약세지속, 기타곡물 강세 현상 보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옥수수 사용한다 조정

지난 연말이래 전반적인 국제곡물시세가 강세 현상을 보여오고 있는데 반해 미산 옥수수를 비롯한 태국산 옥수수 등의 가격동향은 약세기조를 보여왔다.

이와같은 옥수수시세의 안정은 그동안 기타곡물의 강세현상을 어느정도 견제해오면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60:40으로 옥수수 사용한다를 규제해 왔으나 지난 2월 18일부로 현행 옥수수 사용비율 60%를 기준으로하여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옥수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기타곡물과 거의 비슷한 가격수준으로 각광을 받던 태국산 옥수수가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미산 옥수수시세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옥수수사정 호전

최근 미국산 옥수수시세는 미국 서해안(PNW) 선적기준으로 톤당 C&F 118~120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미산 옥수수시세가 지속적인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요요인은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급사정이 크게 호전된데 기인하고 있다.

금년들어 여러차례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85/86년도 옥수수생산량은 2억2천5백18만톤으로 지난 84/85년의 1억9천4백93만톤에 비해 15.5%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85/86년의 3,508만톤의 기초재고 역시 지난해의

1,837만톤의 기초재고에 비해 91%나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초재고와 생산증가를 감안한 총공급물량은 2억6천31만톤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동기수준의 2억1천3백40만톤에 비해 22%나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옥수수 공급사정이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에서 국내수요의 증가폭은 0.7% 증가에 그치고 있고, 수출물량은 지난 84/85년에 비해 오히려 11.6%나 감소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85/86년도 미국의 옥수수 기말재고는 사상 유례없는 8,644만톤이 될 전망이다, 옥수수가격 또한 84/85년의 뷰셀당 2.65불에서 크게 떨어진 2.30~2.50불 수준이 될 전망이다.

■ 태국옥수수 반등기미

미산 옥수수시세가 약세현상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반해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강세로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 연말이래 지속적인 약세현상을 보여 미산 옥수수시세보다 15~20불이 싸게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강세현상을 보여 C&F 105~110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태국산 옥수수시세의 강세현상은 태국산 옥수수에 대한 계약물량의 증가(중공의 10만톤 구매설등) 및 북한과의 40만톤 계약설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교란 등에 기인되고 있다.

즉 북한의 태국산 옥수수 40만톤 구매설은 북한의 Korean Cereal export and import Organization사와 태국의 Soon Hwa Seng, Seng Tong rice, Bang Kok Silo 등과 C&F 122불

선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절재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은 점칠 수 없으나 현재 태국산 옥수수 수송가능물량이 7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만일 계약이 성립될 경우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무튼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타국 옥수수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수출계약물량의 증가 등으로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가격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중공 일본과 장기공급계약

최근 중공산 옥수수시세는 전반적인 생산감소 및 수출여력의 축소, 수출정책의 변화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년도 중공의 옥수수 생산량은 6,400만 톤으로 지난해의 7,340만톤에 비해 무려 12.8%나 감소하였고, 수출물량 역시 지난해의 520만톤에 비해 19.2%나 감소한 420만톤 가량이 될 전망이다. 금년도의 경우 흉작에도 불구하고 수출여력을 지니고 있음은 정부의 수출 재고물량 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양육공사와 토축산품공사를 통해 주로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될 전망이다.

주로 정부베이스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양육식품공사는 일본과 이미 200만톤 이내의 옥수수 장기공급계약을 타협중에 있으며, 타협중인 일본측 종합상사는 미쓰비시, 미쓰이, 이또우주, 마루베니, 도우멘, 도슈쿠, 등 6개사로 선적일은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고 가격수준은 현재 타협중이나 대략 미산 Gulf가격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시장에 제시되는 오퍼가격은 주로 중공의 토축산품공사에서 내고있는 가격으로 최근의 가격은 미산 옥수수시세의 10불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옥수수 가격결정은 기본적인 가격선은 분기별로 중공 옥수수 수출협의회에서 책정하며 이와같이 책정된 가격선을 기준으로 신속성있게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산 옥수수시세의 약세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가격경쟁력을 지니지 못했으나 앞으로 태

국산 옥수수가 강세현상을 보일 때 가격경쟁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 기타곡물 강세현상 지속

옥수수시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반면 기타곡물시세는 지난해 연말이래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보여오고 있다. 최근들어 식물성박류와 소맥피, 수수, 타피오카 등의 강세현상은 근본적으로 수출물량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지만 일부품목은 곡물메이저의 물량확보로 인한 가격등락 현상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식물성박류의 경우 수급불안정에 편승한 Continental, Cargill 등의 물량확보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고, 가격도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두박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캐나다산 채종박(C&F 148불 수준), 인도산 채종박(C&F 130불 수준), 중공산 채종박(C&F 114불 수준), 칠레산 채종박(C&F 138불 수준) 등이 한국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해바라기박도 아르헨티나산, 중공산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던 타피오카 하드펠렛의 수출가격은 수출이 개시된 이래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보여 최근에는 톤당 C&F 85~90불을 나타내고 있어 점차 메릿트를 잃어가고 있다.

태국산 타피오카의 경우 주요 수입국은 EC지역인데 84년부터 EC지역에서 태국산 타피오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쿼터를 책정하였고 이때문에 수출재고누적분 해소를 위해 태국은 EC지역과 Non-EEC 지역에 대해 차등가격제도를 택해왔다. 그리고 Non-EEC 지역에 대한 Exporter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1:1보너스제도를 시행해, Non-EEC 지역에 타피오카 1만톤을 수출할 경우 EEC지역 수출쿼터 1만톤을 늘려주는 제도를 취해왔으나 지난해말 재고물량이 점차 소진되면서 1:0.5보너스 제도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1:0.5보너스 제도마저 폐지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급격한 타피오카 상황변화는 태국의 금년도 타피오카생산감소현상때문으로 앞으로 당분간 타피오카의 값싼 구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